

땅팔아 5조5천억 번 SH...공익사업을 했나, 장사를 했나

“80만평 공공택지 매각해 5조 가량의 이익” 토지로 돈 벌었다는 활용했다는 주장 나와 “매각 않고 보유했다면 공공주택 더 보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 동안 80만평 넘는 공공택지를 매각해 수조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기업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택지에 값싼 공공주택을 지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하는 공공기업이 오히려 땅을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해, 결국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H의 최근 10년 간 28개 지구 택지판매 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는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와 ‘분양가 공개서’가 활용됐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SH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각한 택지는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 86만 7993평으로, 매각액은 14조2363억원이었다. 경실련은 해당 매각액에서 택지조성원가인 8조7679억원을 제외하면 SH가 총 5조4684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는 평당 1640만원에 달하는 수치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마곡지구는 조성원가 3조9천624억원, 판매가 6조

5009억원으로 2조5385억원에 이르는 가장 큰 차익을 냈다. 마곡지구는 SH가 판매한 택지 중 43%를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다. 문정지구는 평당 차익이 가장 큰 곳으로 판매가는 2858만원, 조성원가는 1734만원을 기록해 1125만원의 차익을 냈다.

이처럼 SH가 사기업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사이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실련은 SH가 판매한 토지 가격을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용적률을 적용한 아파트 토지시세가 평당 5520만원, 87만평의 시세는 37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이 지어질 수 있었던 공공택지가 민간에 팔려 나가 택지와 더불어 주택 가격이 뛰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덩달아 멀어졌다는 취지다.

실제로 SH가 평당 1754만원에 판매한 마곡 13단지 같은 경우 현재 아

파트 시세는 평당 3800만원, 건축비를 제하고 용적률 220%를 적용한 아파트 토지시세는 평당 73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SH가 판매한 가격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세곡2지구의 한 아파트 판매가도 1465만원이었지만 현재 토지 시세는 1억70만원으로 판매가의 7배로 값이 상승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S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했다면 서울시민의 자산 증가로 이어졌거나 집값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SH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장기공공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었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70년대 공기업을 만든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 시키라고 만들었다”며 “하지만 2004년 이후 공기업을 본분을 망각한 채 특권을 남용해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SH에 주어진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특권이 국민을 위

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SH가 택지를 민간에 파는 것을 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용산정비창부지, 서울의료원부지 등 서울시내 국공유지는 반드시 팔지 않고 공개개발을 한 후 평당 600만원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코로나19 방역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내려진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입구에 다음달 3일과 4일, 10일과 11일 등 주말 연휴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광주 동전노래방 관련 확진자 1명 추가

광주에서 밤사이 동전노래방 관련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30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이 다. 광주 2207번째 환자로 등록됐다.

해당 환자는 손주인 전북 1413번째 환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1413번째 환자는 지난 12일 동구 모 동전노래방을 방문했다. 이로써 동구 모 동전노래방 관련 확

진자는 18명(방문자 11명, 접촉자 7명)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지역 내 동선·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지역 내 감염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모은다.

“사회에 불만 있다” 서울시장 선거 벽보 훼손...첫 입건

가위로 선거 벽보 고정줄 5개 끊어

30대 남성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뜯어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검거는 지난 25일 이번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벽보를 훼손하다 경찰에 붙잡힌 첫 사례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선거 벽보 줄을 칼로 끊어 선거물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된 A씨를 공직선거법상 벽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선거 벽보를 고정한 줄 5개를 가위로 자르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27일 오전 0시3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에 불만이 있어 이같이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을 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에 대해 “특정 정당을 노리고 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서는 보궐선거가 끝나면 A씨를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해 조사는 마쳤지만 재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과를 지켜보며 선거가 끝난 뒤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 20대...불법 촬영·유포도 ‘덜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하고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등 해외 SNS에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필

로폰 등을 판매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거래했으며,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덜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 판매 대금으로 10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1월 해외 SNS에서 만남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